

피부근염환자에서 발생한 엽성 지방층염 1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류마티스병원, 피부과¹, 병리과²

*김윤정 · 엄완식 · 김태환 · 이창우¹ · 박찬금² · 전재범

서론 지방층염(panniculitis)은 지방 조직내의 염증으로 피하지방층에 가장 흔히 발생한다. 일반적인 지방층염의 원인으로는 감염증, 류마티스질환, 종양, 약물,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Weber-Christian disease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지방층염은 하나의 임상증상으로써 이러한 전신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방층염의 원인질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피부근염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현미경상의 지방층염은 비교적 흔하나 임상적으로 발현되는 지방층염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지방층염은 피부근염의 임상경과중 언제라도 발현될 수 있으며 지방층염이 발현된 피부근염환자의 예후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저자들은 과거 피부근염을 진단받고 치료후 피부근염이 호전된 환자에서 발생한 엽성 지방층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51세 여자환자로 내원 2년전 진행성의 근력약화와 피부병변을 주소로 내원하여 피부근염을 진단받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와 3차례의 면역글로불린 펄스치료후 증상 및 검사실 소견이 호전되어 유지용량의 스테로이드와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서 지내던 중 내원 1달전부터 양측 상지와 왼쪽 대퇴부위에 통증과 중앙함몰이 동반된 홍반성 판이 생겨 내원하였다. 검사실 소견상 정도의 백혈구 감소증과 ESR, CRP상승소견을 보였고 근육효소치는 정상범위였다. 좌측 팔과 우측 대퇴부위 병변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진피와 피하지방층에 국소적인 림프구 침윤과 경화소견을 보여 엽성 지방층염으로 진단하였다. 진단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였고 현재 외래에서 스테로이드 용량을 감량하면서 추적 관찰 중으로 이전에 보이던 피부병변은 완전히 호전된 상태이다.

간질성 폐질환을 동반한 전신 경화증 환자에서 폐기능 검사 후 발생한 종격동 기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류마티스 병원 류마티스내과, 영상의학과¹

배강우 · 엄완식 · 김태환 · 배상철 · 유대현 · 송순영¹ · 전재범

서론 : 전신 경화증에서 호흡기계의 침범은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주로 간질성 폐질환과 폐혈관 질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피부근염이나 루푸스에서 간질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 자연 종격동 기종이 동반된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전신 경화증 환자에서 폐기능 검사 후 종격동 기종이 발생한 증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최근 연구들은 전신 경화증으로 진단되었던 환자에서 폐기능 검사 후 발생한 종격동 기종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8세 남자환자가 심한 레이노 현상을 주소로 본원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였다. 14년 전부터 발생한 레이노 현상과 수지함요케양이 있었으며 8년전 모대학병원에서 전신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약 1년간 약물 치료를 하다가 이후는 한방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류마티스 내과 내원 당시 마른 기침과 경증도의 운동시 호흡 곤란 있었으나 관절통, 연하곤란과 같은 식도증상은 없었다. 이학적 소견상 양측 수지의 레이노 현상과 수지함요반흔이 관찰되었으며 얼굴과 양측 상지, 그리고 체부의 피부경화증이 있었으며 환자의 피부점수(modified Rodnan Skin Score)는 총 9점이었다. 폐기능 검사는 FVC가 3.14L(정상 기대치의 56.2%), FEV1이 2.91L(정상 기대치의 63.3%), DLCO/VA가 50.5%로 중등도의 제한성 폐기능과 중등도의 폐확산능 장애를 보여 주었다. 폐기능 검사 후 시행한 흉부 x-ray와 고해상 흉부 CT에서 양측 폐야의 섬유화가 있는 간질성 폐질환이 있으면서 양측폐 전체의 소엽간 중격 근처에서 심한 폐기종과 기포의 형성이 관찰되었으며 기관부터 하부 기관지까지 연결되는 종격동 기종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았고 이학적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어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 중이다. 결론 : 본 증례에서는 1년여 전에 촬영한 흉부 x-ray 소견상 종격동 기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폐기능 검사 직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간질성 폐질환의 동반이 의심되는 전신 경화증 환자에서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를 시행할 때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